

“수행은 나쁜 습관을 바로 고치는 행동”

지리산 황매암암주 일장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리산 황매암(黃梅庵)으로 일장(日藏) 스님을 만나러 길을 떠났다. 스님은 현대의 고승 동산 스님의 마지막 상좌다. 일장 스님은 석정·수안 스님과 함께 한국 선화(禪畵)의 3대 명장으로 불린다.

갈 길은 먼데 월요일 출근길 고속도로의 정체는 풀릴 줄 모르고. “버스전용차선은 누가 만들어 놨는지... 가다서다 할 것이면 차라리 한참을 서 있다가 한 번에 가던지...” 좁이 썬서 뒤틀리는 몸처럼 머릿속도 운전엔 집중하지 못하고 별의별 망상을 부린다. 이제는 갈 곳을 미리 넘겨줬었다. 몸은 여전히 서울 인근의 팻말이 막힌 고속도로에 있는데, 마음만 벌써 가 있어야 할 황매암을 생각했다.

“황매암, 왜 황매암이라 이름 했을까? 황매화 피는 곳이라 지은 이름이라면 정말 시시할텐데. 그보다 깊은(?) 뜻이라면 황매현에 주석해 황매 스님으로 불리던 육조 혜능 대사의 스승 오조 홍인 대사에서 유래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동계구름처럼 망상이 피어났다.

도로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저 행들만 잡고 있었을 뿐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앞유리창 가득 매우던 차들이 사라지고 아스팔트만 보인다. 차가 달린다.

내게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 할 용기도 없었는데, 바람에 구름이 겹히듯 눈앞이 확 트이는데 환희심 가득하다.

“공부나 수행도 이렇겠지. 진척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기연(機緣)을 만나 졸탁동시(卓錫同時)가 되면 놀라운 향상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때가 돼서 정체가 풀린 것 뿐일테지”라며 어설픈게 시절인연(時節因緣)으로 둘러대는 증생심(衆生心) 또한 여전하다.

서울에서 멀어지고, 지리산에 가까워질수록 계기판의 속도도 올라갔다. 끌려가나보다. 지리산IC를 나오며 달리기도 끝났다. 실상사 못미처 있는 중군부락(中軍部)으로 들어서 임도를 올랐다. 이제는 친절하게 갈림길마다 ‘황매암’이라 정갈하게 쓰인 팻말이 나그네를 인도했다.

지리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흙이 두텁게 덮인 육산(肉山)이기 때문일까? 가파른 길이지만 전혀 험난해 보이지 않는다. 차로 5분여 좀 올랐을까? 굽이를 도니 팻말 글씨만큼이나 정갈한 암자가 보인다. 황매암이다.

일장 스님을 만나 삼배를 올렸다. 컵들이 풀기도 전 당장 황매암 유래부터 따지듯이 물었다.

“주변에 황매가 많아요. 조선조 말엽까지 근처에 절이 있던 곳입니다. 부모나 주춧돌 흔적도 보이고, 인근에 10여 가구 마을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 빨치산 소탕 때 마을주민을 강제 이주시켜 버렸던 곳이지요.”

노랑꽃잎 황매화는 죽도화, 금완, 체당화 등으로

불린다. 4-5월 피는 황매화는 장미목 장미과로 매화나무와는 다르다. 꽃의 모양이 매화를 닮아 노랑매화라 불린다. 황매화의 꽃말은 송고, 왕성, 고귀와 욕망을 누린다는 뜻이다.

소낙비처럼 휘몰아치는 나그네의 성급한 질문을 스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장상에 묻은 빗방울 떨어 떨어냈다. 북북 질문을 떨어낸 스님이 어찌 먼 길을 찾아왔는지 되물고는 한마디 던진다.

“내가 그리는 그림은 그냥 그랬을 뿐이지 선화가 아니요.”

일장 스님의 그림 솜씨에 대한 나그네의 미련이 계속되자 스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없더라는 말입니다. 말만 해서 안 되겠다 싶었지요.”

일장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붓글씨로 적어주면 보고 느낄 수 있겠다 싶어 시작했다. 차츰 신도들이 ‘글만 쓰지 말고 그림도 그려 달라’ 했다. 나중엔 칼라시대에 색깔도 넣어달라고 하더라”며 “어느 순간 그림 그리는 일장 스님이 돼있더라”고 말했다.

울산에서 출생한 일장 스님은 한국전쟁 즈음 절도 불교도 모른 채 부산 영도에서 자랐다. 학창시절 만화책을 주로 보며 만지(?)하기를 즐겼던 스님은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 <서산대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은 사람인데 전혀 새롭게 사는 방법을 보고 신기했어요.” 어린 일장 스님은 책가방을 짊어 마린 한 돈으로 불국사를 찾았다. 석주 스님이 첫 주지로 부임하던 즈음, 일장 스님이 13세 때였다.

“자연 모두가 선화인데 그림 필요 있겠어요?”

돌아서면 잇는 신도 포교 위해 붓 잡아

“작은 것 모아 크게 만드는 것이 불도로 회향하는 길”

“선화라면 열심히 수행하던 자가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낙서해 그린 것이지. 내 그림은 ‘실선’ 자 선화(線畵)라하면 모를까 택도 없지. 게다가 자연 모두가 선화인데 굳이 그림 그릴 필요가 있겠어요? 스님이 뭐하면 ‘선(禪)’ 자 붙이고 그림 그렸다고 선화라는데 내 그림을 내가 볼 때는 어릴 적 노트 뒤에 낙서한 것 같아요. 중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지.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잖소?”

이러 스님은 요즘 세대에 죽비를 날렸다.

“예전 스님들과는 달리 요즘은 큰스님 댁서 유명해지면 정말 재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큰스님이라면 물질로 떠받들잖아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살아있어야 팔리니까. 스님이 집과 부모 버리고 나와 출가했는데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소? 요즘 세상에서는 유명해지는 것은 불행해요. 천박하거나 못 알아주는 것이 고마운 세상이지요.”

그런 스님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신도들 때문이었다.

“1985~2001년, 17년쯤 제주도에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에 ‘목부원’ 세우고 목부(牧夫)로 지내던 시절이었지요. 토굴살이 하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겠어서 염불이며 법문이며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법문을 해도 신도들이 돌아서면 잊고, 한두 시간 열심히 이야기한 내용이 오고 간 곳이

“막상 절에 가니 소설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행자가 됐는데, 막상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집게 주고 껌을 주우라는 겁니다.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5-6년 이곳 저곳 동가식서기속하다 17세 때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만나 정식으로 출가했습니다.” “금정산의 호랑이”라 불리며 참선수행을 강조했던 동산 스님(1988~1965)은 성철 스님의 스승이다. 성철 스님과 일장 스님은 사형사제지간.

“동산 스님은 ‘글공부보다 참선해서 일대사(一大事)를 마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사스님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기도하며 선방에만 다녔죠. 동산 스님은 ‘출가자는 본사, 은사, 법사 3사를 떠나야한다’며 엄매이지 않고 공부하라면 분입니다.”

은사 동산 스님은 일장 스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겨울 새벽에도 동산 스님은 아침공양이 끝나면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고 나갔다. 큰스님이 출선 하니 대중스님들이라고 가만 있을 수는 없었다.

대중살이에 있어 동산 스님의 원칙은 확실했다. 방바닥이 닳으면 군데군데 땀질해 사신 검소함은 물론이고, 좋은 옷감이 시주 들어오면 대중방에 대중들을 불러 앉혀놓고는 대중 숫자대로 옷감을 잘라 나눠줬 정도였다.

“해제 때마다 허튼소리 하는 도인이 인가 받겠다고 여럿씩 찾아왔어요. 엉터리 도인들을 제법한 동



일장 스님은 1945년 경남 울산 출생. 1958년 13세에 출가했다. 범어사 동산 스님의 막내 상좌다.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법선원을 돌며 수선안거한 스님은 1980년 제주 한라산 자락에 목부원을 창건하고 10여 년간 <금강경> 등 경전강독회를 이끌어왔다. 2004년 지리산 황매암을 창건하고 참선정진 중이다. 주요 편역으로 <만선동귀집> <선가귀감> <불광출판사 권> 등이 있다.

45인승 최신행 관광버스 무료지원합니다!

삼사순례 · 방생법회

순례지

- 1 금산 보석사, 무주 안국사, 영동 영국사
- 2 관촉사, 개태사, 쌍계사
- 3 갑사, 신원사

방생지

- 1 금산 부리면 적벽강
- 2 영동 양산 금강상류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장: 정성운 / H,P: 010-5541-5535 / TEL: 070-7764-9002
 금산인삼영농조합법인